

August 27, 2026

FIU,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

- 국가위험평가 기반 위험평가거버넌스시스템 고도화 및 협회·중앙회 역할 강화

I. 개요

금융정보분석원(FIU)은 2026 년 8 월 27 일 16 개 자금세탁방지(AML) 유관기관과 함께 「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 협의회」를 개최하였습니다. 이번 협의회는 2025 년 말 완료된 국가위험평가(NRA)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자금세탁 위험도 변화와 취약요인을 점검하고, 주요 자금세탁 위협에 대한 금융권의 대응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

FIU 는 금융권의 주요 AML 취약점을 분석하여 대응역량 강화 방안을 ① 위험평가, ② 거버넌스 확립, ③ 시스템 고도화, ④ 협회·중앙회 역할 강화의 4 개 분야로 제시하였으며, 유관기관들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.

특히 이번 협의회에서는 형식적인 AML 의무 이행을 넘어 실제 위험에 비례하여 자원을 배분하고, 전문인력과 데이터·IT 역량을 강화하며, 업권 공동의 탐지체계와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“실질적 통제” 중심으로 AML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.

II. 주요 내용

1. 자금세탁 관련 위험분석·평가 강화

협의회 참가기관들은 국가위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각 업권 및 개별 금융회사의 비즈니스 특성을 반영한 자체 위험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, 평가 결과 확인된 취약 분야에 인력·예산·IT 인프라 등 자원을 우선 투입하여 자금세탁 위험에 비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.

2. AML 거버넌스 확립

FIU 는 은행권을 제외한 다수 금융회사에서 AML 전담조직이 부재하거나 담당자가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고, 순환보직 등으로 인해 고도화되는 자금세탁 수법에 대응할 전문역량을 축적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요 취약요인으로 지적하였습니다. 또한 임원 외 직급자가 보고책임자를 담당하는 비율이 높은 점도 거버넌스 측면의 취약점으로 언급되었습니다.

- **전담조직 및 보고책임자 위상 강화:** 소관 금융회사의 AML 전담부서 운영을 독려하고, 보고책임자의 직급 상향을 유도하여 AML 업무의 독립성과 경영진 차원의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.
- **융합형 전문인력 육성:** 신종 자금세탁 기법에 대응하기 위해 AML 업무에 IT·데이터 분석 역량을 접목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를 육성·확충하고, 담당인력의 직무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.

3. AML 시스템 고도화

은행권을 중심으로 AML 시스템에 AI를 도입하여 탐지 정확도를 높이는 개선이 진행되고 있으나, 여타 고위험 업권 및 중소 금융회사의 시스템 개선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업권 간 AML 디지털 격차가 자금세탁의 루프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논의되었습니다.

- **AI 등 신규 기술 활용:** AML 시스템 고도화 과정에서 AI 등 신규 기술을 활용한 탐지기법을 적극 도입하여 탐지 정확도와 대응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.
- **탐지로직 다각화:** 분산거래 또는 우회거래 등 복잡한 거래패턴을 탐지할 수 있도록 탐지로직을 다각화하고, 신종 자금세탁 기법 변화에 맞추어 룰과 시나리오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.
- **데이터 품질관리:** AML 시스템에 유입되는 데이터의 정확성 등을 주기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 품질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.

4. 협회·중앙회의 AML 관련 역할 강화

개별 회사·조합만으로 변화하는 규제환경과 정교해지는 자금세탁 수법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 아래, 협회·중앙회의 지원 역할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. 구체적으로 2026년 하반기부터 각 협회·중앙회 차원의 「AML 고도화 TF」를 운영하여 업권별로 다음 6대 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.

- ① **최신 자금세탁 사례 및 해외동향 등 공유:** 신종 자금세탁 사례, 국제동향 및 대응 우수사례를 수시로 공유합니다.
- ② **표준 가이드라인 등 제정:** AML 역량이 부족한 소형·신설 금융회사 등을 위해 업권 특성이 반영된 표준내규, 위험평가 가이드라인 및 검사 지적사례 등을 제공합니다.
- ③ **공동 STR 룰 및 시나리오 개발:** 업권 특성을 반영한 공동 의심거래 탐지 룰·시나리오를 개발하고, 신종 자금세탁 기법 탐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룰을 신설하고 임계치를 조정합니다.

- ④ **공동 시스템 및 솔루션 지원:** 개별 금융회사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협회·중앙회 차원의 공유형 시스템 모델 구축 또는 외부기관의 독립적 감사 통합발주를 지원합니다.
- ⑤ **교육 및 컨설팅 지원:** 법령·이론 중심 교육을 넘어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case study 중심의 실무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합니다.
- ⑥ **중앙회 검사·제재 실효성 강화:** 중앙회의 AML 전문검사를 확대하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통제하고, 엄정한 제재 및 경영진 책임 명확화 등을 통해 검사 실효성을 강화합니다.

III. 시사점

이번 협의회는 향후 AML 감독·검사 및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단순한 규정 준수 여부보다 **위험평가 결과가 실제 조직·인력·예산·시스템 운영에 어떻게 반영되는지**를 중점적으로 보는 방향으로 강화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.

금융회사가 특히 주목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1. **자체 위험평가 체계의 실효성 점검:** 국가위험평가 및 업권별 위험요인을 회사의 위험평가 방법론에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, 위험평가 결과가 고위험 영역에 대한 통제 강화와 인력·예산·IT 자원의 우선 배분으로 실제 연결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
2. **AML 거버넌스와 전문인력 운영:** AML 전담조직의 설치·운영 여부, 보고책임자의 직급과 권한, 경영진에 대한 보고체계, 담당자의 겸직 및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저하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, IT·데이터 분석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의 확보·육성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.
3. **AML 시스템 및 데이터 품질 관리체계 고도화:** AI 등 신규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, 분산·우회거래 등 복잡한 거래패턴에 대응할 수 있도록 STR 탐지 룰과 시나리오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검증·조정하고, 시스템 입력 데이터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품질관리 절차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.

* * *

법무법인(유한) 태평양은 AML/CFT 거버넌스 및 내부통제 체계 정비, 자금세탁 위험평가, 의심거래보고(STR) 탐지 룰·시나리오 점검, AML 시스템 및 데이터 품질 관리체계 검토, 독립적 감사 및 검사 대응 등을 포함한 AML 종합 컴플라이언스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관련 구성원

김지이나

변호사

T 02.3404.0698

E jeena.kim@bkl.co.kr

정민희

변호사

T 02.3404.0988

E minhee.jung@bkl.co.kr

류한서

전문위원

T 02.3404.0260

E hanseo.ryu@bkl.co.kr

법무법인(유한) 태평양의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, 법무법인(유한) 태평양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 뉴스레터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위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